

‘옵티칼 해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다룬다 금속노조,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니토덴코·엘지디스플레이 진정 접수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는 노동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와 먹튀를 저질렀다. 엘지디스플레이는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물량을 그대로 가져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여전히 물품을 받는다”라며 “두 기업 모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니토덴코와 엘지디스플레이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가리자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OECD 한국연락사무소 앞에서 ‘한국옵티칼 폐업 관련 한국 NCP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NCP 측에 “한국옵티칼 집단 해고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하루빨리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약속한 국가들은 자국에 국내 연락사무소(NCP)를 설치한다.

NCP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실무기구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협력 의무와 인권 책임 경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고용 등에 관한 위협 기반 실사를 하고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때엔 구체책을 제시하거나 협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옵티칼 해고·엘지 묵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섭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국옵티칼

최현환 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니토덴코 자본은 위장 폐업, 부당 해고로도 모자라 지회 고용승계 촉구투쟁을 방해한다”라며 “구미공장 농성장 전기와 수도를 끊고 지회 조합원들 집과 통장을 가압류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엘지디스플레이를 향해 “납품처의 반인권적 행위, 노조 탄압에 대해 조사도 없이 거래를 이어가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엘지 자본 역시 한국옵티칼 해고먹튀에서 자유로울 수 없

다. 한국NCP는 엘지디스플레이에 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NCP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일본 기업이 일으킨 부당한 상황, 한국 옵티칼 해고 2년여 동안에도 한국NCP는 조용했다” 라며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NCP에 국가 예산을 쓰고 연락사무소를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옵티칼 해고에 대한 한국NCP 역할, 빠른 판단 필요해”

나현필 사무국장은 “그간 한국NCP 진정 처리 과정을 보면 접수 여부,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일에 몇 달씩 쓴다. 고용승계를 외치며 1년 가까이 구미공장에서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 라며 “니토덴코와 엘지디스플레이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이 명확한 만큼 한국NCP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기자회견 직후 한국NCP 사무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NCP는 접수 내용이 NCP가 다룰 사항인지 점검, 진정

제도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노조는 조만간 일본 NCP에도 진정을 낼 예정이다.

일본 니토덴코는 구미 한국옵티칼과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서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왔다.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이 2022년 10월 화재로 전소했다. 니토덴코는 바로 다음 달인 11월 한국옵티칼 청산을 결정했다.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고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옵티칼

물량을 모두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넘겼다. 니토옵티칼은 물량 증가로 노동자들을 채용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구미공장과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자회견 날로 지회는 구미공장 천막농성 612일째, 구미공장 고공농성 269일째, 니토옵티칼 평택공장 천막농성 137일째를 맞았다.